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관광자의 시간관과 지각된 만족, 행동의 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

Structural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Tourists' Time Perception, Perceived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of Nostalgic Urban Regeneration Tourist Destination

이재달*

Jae-Dal Lee*

Abstract

As city tourism has recently been evaluated as a major indicator of urban competitiveness, strengthening the role of cities as tourist destinations has received more attention. However,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many cities lead to population decline, extinction of traditional industries, and deterioration of living environments, weakening urban functions and competitiveness. Thus, it is essential for declining cities to build a measure to restore urban competitiveness by enhancing urban function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socio-cultural urban regeneration by exploring physical spaces for tourism destinations in declining cities. Different from general tourist destinations, tourism destinations of urban regeneration have a temporal perspective cover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How does the temporal perspective of urban regeneration tourist destinations affect tourist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the sample of tourists who have visited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stinations. With SEM, this paper investigates structural relationships across variables by testing the hypothesis established in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he results show that precious memories of the past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ourists to visit urban regeneration tourist destinations.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search areas of urban tourism, urban regeneration tourism, and urban regeneration tourism destin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o develop socio-cultural contents of urban regeneration areas as tourism resources to establish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Nostalgic Urban Regeneration Tourist Destination, Time Perception, Behavioral Inten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1. 서론

최근 도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구도심은

인구감소, 저성장, 지역경제기반 붕괴, 주거환경 악
화, 인구유출, 공동화의 악순환으로 도시기능이 상
실되고 있다. 이처럼 쇠퇴한 도시가 경제적, 사회문

*한국국제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jdlee072@hanmail.net)

화적, 환경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커뮤니티를 재건하여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 요구된다.

쇠퇴 구도심은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조성된 신도시와는 달리,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 고유의 감성적 가치와 아날로그적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김홍식 외, 2015). 따라서 재생도시의 감성적 가치와 정서를 도시재생관광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 관광객의 지난 시간을 반추할 수 있는 감성적 도시재생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에서 재생지역의 물리적 도시환경개선만큼이나 도시재생지의 감성적 문화자산과 고유 역사성을 재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어메니티 자산을 복원하여 차별성이 있는 지역 고유 관광콘텐츠로 활용한다면, 쇠퇴도시의 도시기능 회복 및 지속적인 외부 인구유입과 이를 토대로 지역민 소득증대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대상지는 그 지역의 오랜 역사와 함께 형성된 지역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감성적도시관광지로서의 구도심의 도시기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행과 관광부문에 새로운 트렌드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종전의 대규모 대면 대중관광에서 소규모 개인 중심의 비대면 테마관광 행태로 관광의 개념이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관광객의 취향이 반영된 일종의 테마관광목적지로서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틈새관광지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개발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재생지는 과거의 추억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규모 비대면 감성적 관광객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재생도시 구도심의 기능 확장을 통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로서의 지역재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생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도시관광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콘텐츠로서의 기능 발굴을 위한 사회문화적 도시재생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도시재생관광자의 시간적 관점은 관광객의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관광객의 시간적 관점에 따른 관광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재생 관광목적지를 재생한다면, 관광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광만족도는 관광객의 재방문 및 구전의도의 선행변수이므로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방문자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재생관광지의 관광만족도는 도시재생관광자가 그 관광지를 재방문하거나, 구전(word of mouth) 혹은 타인에게 추천을 함으로써 향후 정(正)적으로 관광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지 구도심이 간직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자산을 차별화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자원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감성적 도시재생관광객의 관광행동 의도와 관련된 과거, 현재, 미래 등 관광행동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관에서 유래한 위의 세 변인들 간 구조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재생관광지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고안한 설문문항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에 적절한 190명의 유효한 자료를 SPSS 23.0과 AMOS 23.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이론적 고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현황정보(2022년 3월 현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 이전까지는 총4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에는 68개소, 2018년 100개소, 2019년 116개소, 2020년 117개소, 2021년 87개소로 총 사업수가 급증하였으며 2022년 3월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총 사업수는 534곳에 이른다.

도시재생은 도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도시재생 당해지역의 역사·문화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의 개념은 국가나 시대상황에 따라 도시 공간 재생방향을 고려한 적용범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¹⁾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부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권혁신·방두완, 2021; 남호성·황재훈, 2021).

도시 쇠퇴지표 및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와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인구감소는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체 수 감소는 지난 1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했거나,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생활환경 악화는 20년 이상이 된 노후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등의 법정지표를 충족시켜야 한다(국토교통부, 2020).

우리의 도시재생은 도시재개발과 같은 기존 시가지 정비를 위한 물리적 정비방식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도시환경의 개선은 물

론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비방식을 지향하고 있다(유재운, 2019; 이성현·손지훈, 2020). 이는 도시재생에 장소와 함께 지역의 인문학적 콘텐츠를 재생사업에 포함시킨다고 할 수 있다.

도시재생관광지는 도시재생으로 조성된 도시재생관광지의 랜드마크 혹은 킬러 콘텐츠에 관광목적지로서의 기능이 부가적으로 창출된 장소를 말하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지역의 집객력이 높아지면서 재생도시의 관광기능과 매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earce, 2001; 오은비 외, 201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성된 재생지역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콘텐츠는 도시재생관광의 매력물이 된다. 관광 매력성을 지닌 재생관광지는 도시관광의 관광경제적 측면에서 도시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관광목적지로서 지역경제활성화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는 일종의 쇠퇴산업 및 역사지역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활중심지 특화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상 도시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자원을 관광 개발에 활용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견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생도시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인문자산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관광 수요자들의 심리를 활용하여 시간적 관점에 따른 관광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감성적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지역의 가치창출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에 학문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없다. 다만, 관광이론상 관광의 구성 영역에서 핵심적인 관광자 소비행동관점의 관광객체로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란 도시재생관광지 방문자의 방문 동기가 자신의 시간관에 근거한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시행 2022.1.1.), 법률 제17014호, (2020.12.31., 타법개정)

관광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관광의 객체와 주체로서 도시재생관광지와 방문객이 존재하는 한 관광의 학문적 구성요소를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2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2.2.1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도시재생과 도시관광 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영역 연구는 도시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물리적, 환경적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쇠퇴한 도시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재생 지역의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원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커뮤니티를 재건하여 주민참여와 외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인영·배기철, 2019; 김중구·문국경, 2022; 강현도 외, 2022).

도시재생지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의 공간구조 및 쇠퇴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계획, 도시재생 모델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도시재생 현장의 핵심 이슈 도출 등의 쇠퇴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재생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로서, 방문객의 행동특성과 관광객 심리분석을 통한 관광자의 행동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관광자의 관광행동 연구에 있어서, 관광자의 관광 결정 시점에 이루어지는 시간적 관점이 관광자의 관광만족과 관광행동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지난날의 향수를 자극하는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에서는 시간의 관점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과 소비자 심리와 관련된 연구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시간관(Time Perspective)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Shipp et al.(2009)의 연구로

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간관은 개인이 특징적으로 자신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시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Nuttin, 1985; Bluedorn, 2002; 이승준, 2021).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과거지향적 시간관에 근거한 레트로(복고주의)열풍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과거의 향수를 토대로 ‘과거의 것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재창조’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현대인의 디지털 문명에 의한 인간관계의 소외감에서 벗어나 과거의 친숙함과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김종흠·조혜진, 2020), 이를 도시재생지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자산을 감성적 도시재생관광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자원이자,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인간의 행동에 시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다. Avci(2013)는 인간은 현재의 시간에 살고 있지만, 행동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중 하나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시간관이라 한다. 또한 시간관은 주관적인 개인특성 변수로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으로 구분되며,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Zimbardo and Boyd, 1999; Shipp et al., 2009; García and Ruiz, 2015; 권기철·서영욱, 2020).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지향적 시간관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현재의 즐거움을 지향하며, 내일의 보상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미래에 대한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현재의 안위를 희생하는 경향을 가진 사고다. 즉, 미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개인특성이거나 할 수 있다(Zimbardo and Boyd, 1999; 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혹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만족의 선행변수인 개인의 시간관을 도시재생관광지에 접목하여 도시재생 관광자의 행동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시재생관광에 있어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통해, 과거의 시대적 향수를 현대적 관광 소비욕구에 접목하여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와 가치창출을 위한 시도로써 의미가 있다.

만족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한 후, 소비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상태나 느낌에 대한 호의적 평가를 말한다(Bhattacharjee, 2001; 조한나 외, 2021). 그리고 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개 만족을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변수로 간주해왔으며, Kotler(1994)는 만족을 소비자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라고 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일련의 기업활동에 대한 결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가 연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고객만족은 고객이 어떤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대수준과 실제경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Westbook and Newman, 1978). 이재달·박일(2015)는 관광객의 지각된 만족은 기대와 실제경험이 결합된 종합적 상태로서 소비활동의 주요한 목적으로 작용하고 총체적인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도시재생관광자의 만족 수준에 따라 도시재생관광자의 행동의도인 재방문과 구전의 선행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해 조한나 외(2021)는 Lazarus(1991)가 제시한 인지-감정-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근거하여 고객 가치-지

각된 만족-행동의도로 이어지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사용자들이 특정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인 이용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도시재생관광자의 관광가치 지각의 시간관-지각된 만족-행동의도의 구조관계 설정을 위한 연구모형으로 활용하였다.

행동의도(Behavior Intention)는 특정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형성된 태도가 미래의 행동으로 표출하려는 개인의 의지 및 신념으로 정의된다(Ajzen, 1991; Boulding et al., 1993; 김성조·김재학, 2020). 관광객 행동연구의 토대가 되는 소비자 행동의 범주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다. 이와 같은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이론으로써, 인간의 행동의도에 대한 심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Ajzen, 1991).

박명섭 외(2012)는 행동의도를 개인의 미래 행동에 대한 의지의 정도라고 하였다. 행동의도는 만족의 결과변수로서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후 나타나며,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소다. Yoon and Yoon(2013)은 행동의도는 특정 목적지, 재화 혹은 서비스에 대한 재방문이나 재구매, 그리고 호의적인 구전 및 추천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행동의도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예측하여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결국, 제품과 서비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를 소비한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광자의 평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도시재생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의 만족과 행동의도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2.2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이 있다. 첫째,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관광이라는 관광학 영역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관광행태가 비대면 관광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점에, 도시재생관광이 새로운 개념의 관광영역으로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지가 관광목적지로서의 기능 강화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도시재생관광에 관한 연구 또한, 도시재생 분야와 도시관광 분야의 통합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지만(김지인·민제호, 2021), 실제 도시재생에서는 재생지역의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도시재생지의 사회문화적, 인문학적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관광지의 콘텐츠자원화 사업은 제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둘째,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을 도입하여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문화적 어메니티 자산을 관광자원화하려고 하였다. 도시재생관광은 일반 관광과는 달리 관광자의 관광동기와 관광태도에 특별한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관광목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일반 관광지 관광객과는 달리 관광자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적 관점에

따라 추억과 향수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의도에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승준, 2021). 이러한 관광객 행동특성을 반영하여, 쇠퇴한 도시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감성적 도시재생목적지로서의 도시관광 기능강화를 이룸으로써 도시경쟁력 회복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문적 학제간 융합연구와 실무적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으로 도시관광, 도시재생관광, 도시재생관광목적지 연구 영역을 개척함과 동시에, 실무적으로도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문화적 콘텐츠를 감성적 도시재생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도시재생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사업 계획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관광지에 대한 성과는 방문객의 행동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재생관광목적지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재생관광지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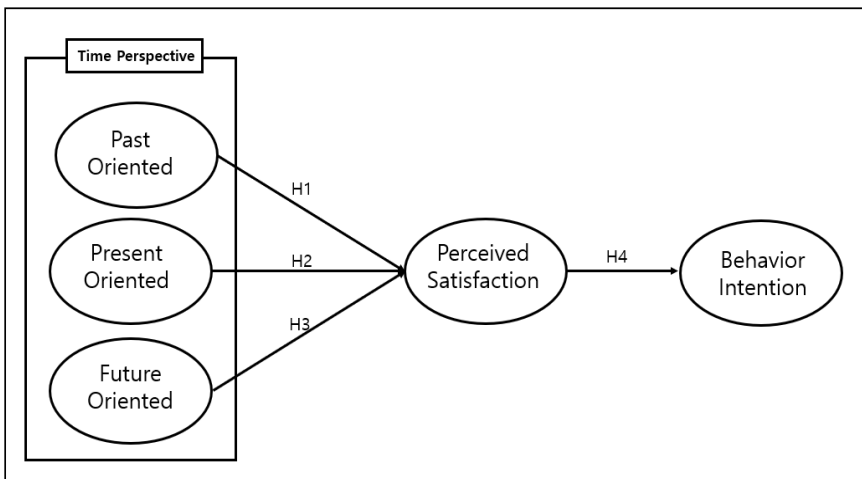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생관광객의 관광행태와 행동의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소비자의 행동의도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도시재생관광지 방문자가 가지는 방문지에서 느끼게 되는 개인적 지각적 가치에 근거한 과거,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시간관, 지각된 만족과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감성적 도시재생목적지 관광자의 관광동기로서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관과 지각된 만족,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설1(H1): 과거지향적 시간관은 지각된 만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현재지향적 시간관은 지각된 만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미래지향적 시간관은 지각된 만족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H4): 지각된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 응답자가 방문경험이 있는 도시재생관광지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문자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감성적 가치와 지각된 만족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였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관광지의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감성적 가치와 아날로그적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곳으로, 향후에 도시재생관광 개발의 성공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2021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난 과거에 대한 개인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이 제각기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방문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감성관광지 방문경험자를 통해 수집된 201부의 설문지 중, 부적절한 11부를 제외하고 유효한 190부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전체 응답자가 방문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및 방문빈도는 총 9개 지역, 190명이었다. 방문지별 빈

Table 1. Respondents Visited Urban Regeneration Tourist Sites and Its Frequency

Tourist Sites	Located	Frequency	Efficient %	Cumulated %
Ikseon-dong Hanok Street	Jongno-gu, Seoul	19	10.0	10.0
Bukchon Hanok Village	Jongno-gu, Seoul	28	14.7	24.7
Haengnidan-gil	Haenggung-dong, Suwon	26	13.7	38.4
Modern Culture City	Gunsan, Jeollabuk-do	24	12.6	51.1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Mokpo, Jeollanam-do	6	3.2	54.2
Gamcheon Culture Village	Saha-gu, Busan	17	8.9	63.2
Kkangkkangi village	Yeongdo-gu, Busan	17	8.9	72.1
Hwangnidan-gil	Gyeongju, Gyeongsangbuk-do	27	14.2	86.3
Dongpirang Mural Village	Tongyeong, Gyeongsangnam-do	26	13.7	100
Total	-	190	100	-

도 및 유효 퍼센트를 살펴보면,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 19명(10.0%), 북촌 한옥마을 28명(14.7%), 수원 행궁동 행리단길 26명(13.7%), 전북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24명(12.6%),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6명(3.2%),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17명(8.9%), 부산 영도구 강강이마을 17명(8.9%),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 27명(14.2%), 경남 통영시 동피랑 벽화마을 26명(13.7%)으로 이들 응답자들로부터 획득한 설문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Table 2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구성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측정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시재생지 관광자의 시

간관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과거, 현재, 미래지향형 잠재변수를 추출하였고, 관광자의 행동의도의 선행 변수로 지각된 만족, 종속변수로 행동의도 라는 5개의 잠재변수를 도출하였다. 시간관에 속한 과거지향적, 현재지향적, 미래지향적 구성개념은 각각 4항목, 지각된 만족과 행동의도는 각각 3항목의 측정문항을 본 연구에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총 18개 문항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3.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다음 측정변수 간의 구조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AMOS 23.0을 이용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s and Scales for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Operational Definition	Scales	Researchers
Time Perspective	Past Oriented	PO1 I value my past life.	Zimbaro and Boyd (1999), Shipp et al. (2009), García and Beléen Ruiz (2015), Kim et al. (2016), Kwon Ki-cheol and Seo Young-wook (2020), Lee Seung-jun (2021)
		PO2 My past memories are precious.	
		PO3 I often remember the past.	
		PO4 I value myself of the past.	
	Present Oriented	HO1 I value my present life.	
		HO2 I focus on my current job.	
		HO3 I value the present moment.	
		HO4 I value who I am today.	
	Future Oriented	MO1 I value my future life.	
		MO2 I prepare for the future.	
		MO3 I make a picture my future.	
		MO4 I value myself of the future.	
Perceived Satisfaction	Feeling satisfied after consuming a product or service	PS1 I am satisfied with my choice here.	Westbrook and Newman (1973), Kotler (1994), Jaedal Lee and Il Park (2015)
		PS2 This place suits my taste well.	
		PS3 I am overall satisfied with here.	
Behavior Intention	The degree of will of an individual's future behavior	BI1 I want to visit here again.	Park Myung-seop et al. (2012), Yoon and Yoon (2013)
		BI2 I want to visit here continuously.	
		BI3 I'll recommend here to others.	

4.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먼저, 성별 구성비는 남 63명(33.2%), 여 127명(66.8%)이고, 연령은 20대 36명(18.9%), 30대 74명(38.9%), 40대 67명(35.3%), 50대 12명(6.3%), 60대 1명(0.5%)이었다. 학력은 고졸 19명(10%), 전문대졸 34명(17.9%), 대졸 121명(63.7%), 대학원졸 16명(8.4%)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91명(47.8%), 기혼 99명(52.1%)이었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대 27명(14.2%), 200만원대 93명(48.9%), 300만원대 54명(28.4%), 400만원대 16명(8.4%)이었다. 직업은 영업직 16명(8.4%), 사무직 67명(35.3%), 전문직 28명(14.7%), 회사원 36명(18.9%), 자영업 16명(8.4%), 주부 20명(10.5%), 학생 4명(2.1%), 기타 3명(1.6%)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측정의 일관성있는 결과를 설명하는 단일차원성을 얻기 위해,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개의 구성개념에 대한 18항목의 측정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값이 .888로 나타났다. 이는 권장 알파 값 .6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충족되었다.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측정했는지를 설명하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Fig. 2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chi^2/df=1.935$ (3미만, 충족), RMR=.025(.08이하, 충족), GFI=.880(.90이상, 수렴), AGFI=.836(.90이상, 수렴), CFI=.928(.90이상, 충족), TLI=.911(.90이상, 충족), RMSEA=.070(.08이하, 충족)로 분석결과의 값이 전반적으로 적합도의 기준을 수렴하거나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90)

Classification	Items	Frequency	Ratio (%)	Classification	Items	Frequency	Ratio (%)
Sex	Male	63	33.2	Marriage	Not Married	91	47.8
	Female	127	66.8		Married	99	52.1
Age	20's	36	19.9	Occupation	Sale	16	8.4
	30's	74	38.9		Office	67	35.3
	40's	67	35.3		Special	28	14.7
	50's	12	6.3		Employed	36	18.9
	60's	1	0.5		Business	16	8.4
Education	High School	19	10.0	Housekeep	20	10.5	
	Community	34	17.4	Student	4	2.1	
	University	121	63.7	Etc.	3	1.6	
	Graduate S.	16	8.4	-	-	-	-

Table 4. Model Fit Index Analysis Results

	χ^2/df	RMR	GFI	AGFI	CFI	TLI	RMSEA
Criteria	<3	≤.08	≥.90	≥.90	≥.90	≥.90	≤.08
Results	1.935	.025	.880	.836	.928	911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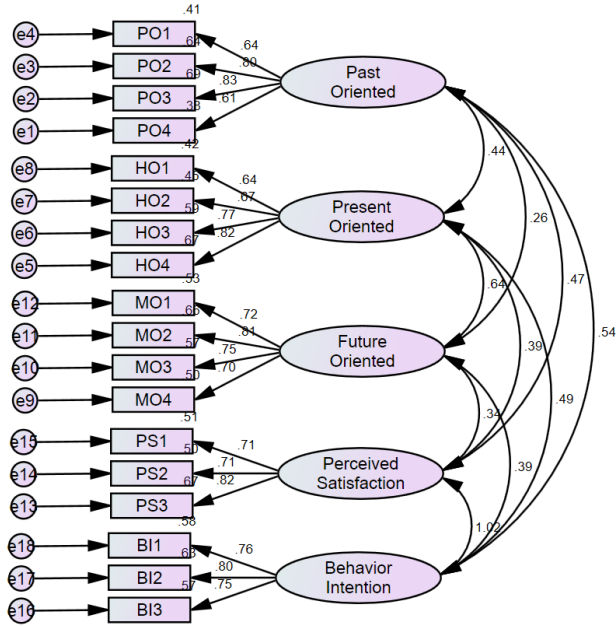


Fig.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SEM for Validity Verification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Construct Concept	Measured Variables	Standardized Coefficient	S.E.	C.R.	p	
Time Perspective	Past Oriented	PO1	.643	.134	7.084	.000***
		PO2	.797	.146	8.160	.000***
		PO3	.831	.164	8.302	.000***
		PO4	.614	-	-	-
Time Perspective	Present Oriented	HO1	.645	.075	8.762	.000***
		HO2	.672	.082	9.170	.000***
		HO3	.771	.086	10.629	.000***
		HO4	.817	-	-	-
Time Perspective	Future Oriented	MO1	.725	.099	8.844	.000***
		MO2	.814	.114	9.693	.000***
		MO3	.754	.105	9.143	.000***
		MO4	.704	-	-	-
Perceived Satisfaction	Perceived Satisfaction	PS1	.714	.095	9.204	.000***
		PS2	.706	-	-	-
		PS3	.820	.084	10.486	.000***
Behavior Intention	Behavior Intention	BI1	.762	.091	10.695	.000***
		BI2	.795	.083	11.218	.000***
		BI3	.754	-	-	-

*** is significant at p<.001 level

그리고 구성개념에 대한 개별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검증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측정에 사용된 모든 측정항목의 표준화계수는 .60이상으로 측정변수가 구성변수를 잘 설명하는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C.R.(critical ratio)값은 유의확률값(p)<.05 기준에서 모든 측정항목이 1.96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와 연구모형이 부합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C.R.(critical ratio)값은 p<.05 기준에서 모든 측정항목이 1.96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와 연구모형이 부합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 다음으로 측정모형의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 및 집중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AVE 값은 구성개념인 과거지향적 시간관 0.69975680, 현재지향적 시간관 0.75796741, 미래지향적 시간관 0.73863308, 지각된 만족 0.66913943, 행동의도 0.75468025의 값으로 나타나 모두 기준값 .5 이상으로 충족되었다.

또한 모든 구성개념의 C.R.값도 과거지향적 시간관 0.90163819, 현재지향적 시간관 0.92543062, 미래지향적 시간관 0.9184989, 지각된 만족 0.85791471, 행동의도 0.90219134의 값으로 기준이 되는 .7을 상회하므로 구조방정식모델의 집중타당성 검증에 요구되는 구성개념의 집중타당도를 충족시켰다. 그리고 모든 상관계수의 값이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

값 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도시재생관광지의 개인적 관광성향에서 중요시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관을 설명한 측정변수, 관광 후 관광객이 가지게 되는 지각된 만족과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모든 측정변수는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측정변수를 대표하는 구성변수에 대해서도 신뢰성과 타당성이 분석결과 모든 지표가 충족되었다.

4.3 제안된 연구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 분석과 가설검증을 위해 Fig. 3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chi^2/df=1.917$ (3미만, 충족), RMR=.025(.08이하, 충족), GFI=.879(.90이상, 수렴), AGFI=.838(.90이상, 수렴), CFI=.927(.90이상, 충족), TLI=.913(.90이상, 충족), RMSEA=.070(.08이하, 충족)로 분석결과 값이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의 기준을 수렴하거나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제안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충족되었으며, 가설검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H1(과거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 가설

Table 6. Results of Correlation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f Measurement Model

	Correlation				AVE	C.R.
	1	2	3	4		
Past Oriented	.490				0.69975680	0.90163819
Present Oriented	.353**	.575			0.75796741	0.92543062
Future Oriented	.218**	.475**	.546		0.73863308	0.9184989
Perceived Satisfaction	.355**	.279**	.282**	.448	0.66913943	0.85791471
Behavior Intention	.440**	.396**	.326**	.394**	0.75468025	0.90219134

**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at the .01 level (both sides). Dark numbers are AVE squa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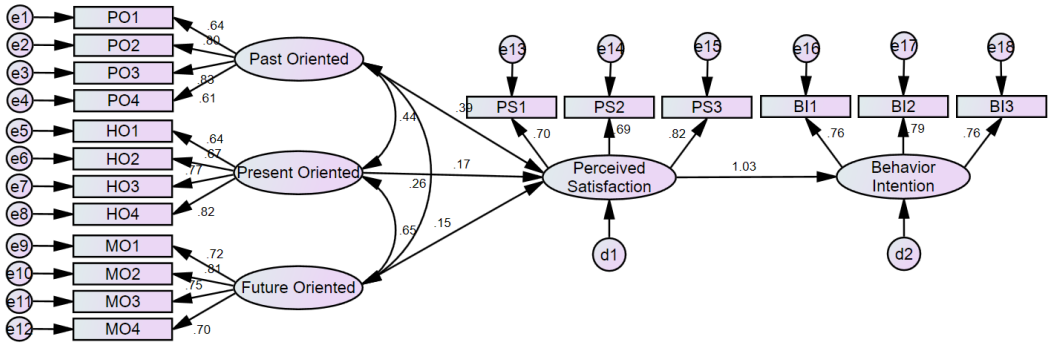


Fig. 3. Research Model Analysis Result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Verification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λ	S.E.	C.R.	p	Result
H1	Past Oriented→Perceived Satisfaction	.394	.115	4.108	.000***	Accepted
H2	Present Oriented→Perceived Satisfaction	.171	.115	1.483	.138	Failed
H3	Future Oriented→Perceived Satisfaction	.154	.109	1.472	.141	Failed
H4	Perceived Satisfaction→Behavior Intention	1.034	.106	9.664	.000***	Accepted

*** is significant at $p < .001$ level

은 표준화 계수(λ)값이 .394로 비교적 낮지만,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4.108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가설을 채택한다. H2(현재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 가설은 표준화 계수(λ)값이 .171로 현저히 낮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1.483으로 $p < .05$ 수준에서 1.96보다 작고, p 값이 .138로 유의확률값 .05를 상회하므로 가설을 기각한다. H3(미래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 가설은 표준화 계수(λ)값이 .154이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1.472로 $p < .05$ 수준에서 1.96보다 작고, p 값이 .141로 유의확률값 .05를 상회하므로 가설을 기각한다. H4(지각된 만족→행동의도) 가설은 표준화 계수(λ)값이 1.034이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9.664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가설을 채택한다.

4.4 분석결과 및 도시재생의 전략적 대안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결과,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관광목적지를 탐방하는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대한 구성개념 경로는 과거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행동의도라는 유의한 구조관계가 규명되었다. 이는 도시재생관광지의 관광객 관광동기는 일반 관광지의 일탈적, 심미적, 오락적 관광동기와는 달리 특별한 감성적 행동특성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재생관광지 관광객은 과거의 추억이나 향수를 현대적 관광 소비욕구에 반영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를 쇠퇴한 도시의 도시재생사업 구상에 반영하게 되면 감성적 도시재생관광목적지로서의 새로운 이미지와 가치창출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모형 구조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공적인 도시재생관광지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거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감성적 도시재생 관광지 관광자는 자신이 방문한 관광지에 대한 지각된 만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 시행주체는 도시재생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중한 과거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성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지향적 시간관과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관광자의 지각된 만족에 대한 시간관은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들은 '지금 순간에 대한 관심'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집단으로, 지금 이 순간이나 미래의 삶과 일에 보다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일탈적, 유희적, 교육적 관광매력물을 제공하는 전략적 방안이 요구된다.

셋째, 지각된 만족은 행동의도의 선행변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각된 만족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관광자의 향후 재방문, 지속적 방문, 타인에게 추천의 행동의도 등 관광행동은 지각된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관광자를 위해서는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혹은 미래지향적 시간관을 가진 도시재생관광자를 위한 유희와 일탈을 채워줄 수 있는 차별성이 있는 관광지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최근 도시쇠퇴와 지역소멸 문제가 지속가능도시 논의의 중심에 있다. 도시쇠퇴와 소멸 원인 또한 복잡한 만큼 해결방안도 복잡하다할 것이다. 쇠퇴한 도시에 대한 정책의 축이 도시재개발에서 도시재생

으로 전환되면서, 쇠퇴한 구도심의 도시경쟁력 회복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자 행동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을 감성적 도시관광목적지 개발의 틈새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는 재생 도시의 관광목적지로서의 물리적 공간을 도시관광 관광자의 관광콘텐츠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문화적 도시재생이 요구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광자의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강조하는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를 탐방한 경험이 있는 관광자를 대상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과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관광자의 시간관, 지각된 만족, 행동의도 간의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H1(과거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은 표준화 계수(λ)값이 .394로 비교적 낮지만,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4.108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H2(현재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는 표준화 계수(λ)값이 .171로 현저히 낮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1.483으로 $p < .05$ 수준에서 1.96보다 작고, p 값이 .138로 유의확률값 .05를 상회하므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셋째, H3(미래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는 표준화 계수(λ)값이 .154이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1.472로 $p < .05$ 수준에서 1.96보다 작고, p 값이 .141로 유의확률값 .05를 상회하므로 가설이 기각되었다. 넷째, H4(지각된 만족→행동의도)는 표준화 계수(λ)값이 1.034이고,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정하는 개념신뢰도(C.R.) 값은 9.664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가설이 지지되었다.

연구를 요약하면,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과거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감성관광지를 탐방하는 관광자의 관광행동에 대한 구성개념 경로는 과거지향적 시간관→지각된 만족→행동의도라는 유의미한 구조관계가 규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의의가 있다.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는 일반 관광객과는 달리 자신의 관광행동에 초점이 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관점에 따라 지각된 만족과 행동의도가 달라진다는 특징적 구조가 발견되었다. 가설검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재생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의 과거 기억과 경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거지향적 시간적 관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관광목적지를 재생한다면, 관광만족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객이 바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의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광만족도는 관광객의 재방문 및 구전의도의 선행변수이므로 도시재생으로 탄생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의 관광만족도는 도시재생관광자의 관광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5.2 연구의 학술적, 실무적 가치 및 한계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무적 가치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학문적 가치로서 도시재생이라는 도시공학이나 도시계획의 학문영역에 도시관광, 도시재생관광, 도시재생관광목적지에 대한 시간관에 기초한 소비자의 행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융합을 위한 학제적 연구 개척에 그 가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규명된 재생도시 방문자의 시간관에 따른 관광행동의 변화방향을 실무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시로서의 기능적 한계에 직면한 쇠퇴도시 도시재생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어메니티의 관광자원화 전략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 감성적 도시재생관광 자원 개발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관광마케팅, 도시재생 사업 계획수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수립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연구 한계로는 첫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이다.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에 있어서 50세 이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도,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 및 관광 전문가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둘째, 연구에 활용된 변수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관광과 관련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변수를 다루지 못하고, 관광객 행동에 초점을 둔 도시재생관광자의 시간관, 지각된 만족, 행동의도라는 세 개의 구성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시행되지 못한 도시재생과 재생도시관광자 행동과 관련한 융합 연구 측면에서의 학제간 연구 및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이론적 문헌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끝으로, 도시재생 사업 분류상 근린생활형의 중심지가 지형 사읍은 대부분 감성적 도시재생관광 사례로 제시할 수 있지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응답자의 방문빈도가 높은 대표적 사례 9개만 분석함으로 그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 충분한 사례를 반영한 확장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강현도·정승진·장윤정(2022), "관광중심형 도시재생 관광지 방문객과 거주민의 물리적 환경평가 비교: 부산 감천문화마을을 대상으로",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6(2): 125~138.
2. 국토교통부(2020.12.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3. 권기철·서영욱(2020), "미래지향적 시간관, SNS 태도, SNS 추천의도의 구조적 관계",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4): 741~751.
4. 권혁신·방두원(202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연구: 지역리츠제 도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7(1): 5~20.
5. 김성조·김재학(2020), "문화재야행 환경에서 지각된 장소성과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학연구』, 44(8): 155~175.

6. 김중구·문국경(2022), “지역의 사회적 자산이 도시 재생사업 주민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33(1): 87~95.
7. 김종흠·조혜진(2020), “노스텔지어와 지각된 새로움을 기준으로 분류한 제품유형이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과거의 시간적 거리감을 조절변인으로”, 『소비자학연구』, 31(2): 129~150.
8. 김지인·민제호(2021), “문화적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관광 성공요인 개발 연구”, 『인문사회21』, 12(4): 2873~2886.
9. 김홍식·한성미·박해연(2015), 「지역구도심 재생을 위한 도시관광 정책방안 연구」, 수원: 경기연구원.
10. 남호성·황재훈(2021), “문화·예술적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분석: 청주시 중앙동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7(2): 25~42.
11. 박명섭·강용준·조성우(2012), “크루즈 서비스 선택 속성이 관광만족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8(3): 193~214.
12. 박인영·배기철(2019), “관광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전주 지역 주민의 주거만족도 및 지역사회 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3(5): 803~825.
13. 오은비·송나영·김태형(2019), “도시재생관광지의 공공디자인 특성이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3(7): 103~122.
14. 유재윤(2019), 『URBAN REGENERATION - A Primer on Korean Planning and Policy』, 세종: 국토연구원.
15. 이성현·손지훈(2020), “IPA기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지의 매력요인 분석”, 『도시재생』, 6(3): 43~60.
16. 이승준(2021), “시간적 초점이 도시재생관광지의 자아일치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17. 이재달·박일(2015), “생태관광 목적지 탐방객의 동기요인과 충성도 간의 구조관계 분석과 전략”, 『마케팅논집』, 23(2): 47~65.
18. 조한나·김명진·전유미(2021), “섬여행의 관광동기, 지각된 가치, 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관광진흥연구』, 9(3): 275~291.
19.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20. Avci, S. (2013), “Relations between Self-Regulation, Future Time Perspective and the Delay of Gratification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133(4): 525~537.
21. Bhattacharjee, A. (2001), “Understanding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An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MIS Quarterly』, 25(3): 351~370.
22. Bluedorn, A. C. (2002), 『The Human Organization of Time: Temporal Realities and Experie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3. Boulding, W., R. Staelin, A. Kalra and V. Zeithaml (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rom Expectations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0(1): 7~27.
24. García, A. J. and B. Ruiz (2015), “Exploring the Role of Time Perspective in Leisure Choices: What about the Balanced Time Perspectiv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7(5): 515~537.
25. Kim, S. B., C. G. Byun and H. H. Ha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 Balanced Time Perspectives and Attitude Toward Trying Startup”,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1(4): 110~129.
26. Kotler, P. (1994), 『Marketing Management 8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27.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4): 352~367.
28. Nuttin, J. (1985), 『Future Time Perspective and Motivation: Theory and Research Method』,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9. Pearce, D. G. (2001),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Urba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926~946.
30. Shipp, A. J., J. R. Edwards and L. S. Lambert (2009),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Temporal Focus: The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0(1): 1~22.
31. Westbrook, R. A. and J. W. Newman (1978), “An Analysis of Shopper Dissatisfaction for Major Household Applianc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5(3): 456~466.
32. Yoon, H. S. and H. H. Yoon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Personal Consumption Values on Purchase Intention of Environment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The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al

- Conscious Behavior”, *Korean Journal of Hotel Administration*, 22(1): 253~267.
33. Zimbardo, P. and J. Boyd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71~1288.
34. 국토교통부(2022),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현황정보”, 2022.4.12. 읽음. <https://www.city.go.kr/index.do;jsessionid=E314C5>

요약

최근 도시관광이 도시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평가됨에 따라 관광지로서의 도시기능 강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오래된 원도심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감소, 전통산업의 소멸, 생활환경 악화 등의 사회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기능을 저하시키고 도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쇠퇴하는 도시는 도시기능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방안 마련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쇠퇴한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역사적, 사회문화적 자산을 감성적 관광목적지 콘텐츠로 발굴하여 사회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구도심 경쟁력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감성적 도시재생 관광지는 일반 관광지와 달리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시간적 관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관광행동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관광지의 개발전략을 위해,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관광객의 시간적 관점, 관광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획득한 자료로, 분석에 필요한 구성변인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한 변인간 구조관계를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시재생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가장 중요한 관광행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거의 소중한 추억에서 비롯된 과거지향적 시간관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도시관광, 도시재생 관광, 도시재생관광목적지 관광이라는 학술적 연구분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의 계획수립과 도시재생지역의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쇠퇴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에 실무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도시재생, 감성적 도시재생관광지, 시간관, 행동의도, 구조방정식